

KMI 동향분석

VOL.224
2026년 7월

발간년월 2026년 7월(통권 제22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육근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1조 4,493억 원 기록, 2년 만에 약 두 배 성장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슬기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예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yelimkim@kmi.re.kr/051-797-4797)
황태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htk@kmi.re.kr/051-797-4784)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단순한 회복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연안지역 전체 소비액은 1조 7,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고, 이 가운데 해양관광 관련 업종 소비는 1조 4,493억 원으로 41.3% 늘었다. 특히 해양관광 소비는 2023년 7,207억 원에서 2년 만에 약 두 배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양관광 소비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과 달리, 외국인 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며 연안지역 관광소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내국인 소비 시장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외국인 소비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와 지출 수준은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외국인의 연안지역 전체 소비액은 내국인 연안지역 전체 소비액의 약 2.8%로, 2023년 1.3%, 2024년 2.0%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95,711원으로 내국인 23,398원의 약 4.1배 수준이며, 외국인 관광업종 결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이 절대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결제 건당 지출 수준과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고부가가치 성장시장임을 보여준다.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업종 구조는 숙박 중심에서 숙박과 쇼핑이 병행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는 숙박 48.3%, 소매·유통 36.3%, 음식 15.1%, 여가오락 0.3%로 구성되어 숙박과 소매·유통이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다. 특히 소매·유통 소비는 2023년 2,009억 원에서 2025년 5,267억 원으로 2년 만에 약 2.6배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였다. 반면 여가오락 소비는 전체의 0.3%에 그쳐,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아직 해양레저·체험형 활동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 소비 구조도 전년과 달라졌다.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상위국은 대만이 21.5%로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14.6%, 일본 12.5%, 미국 12.5%가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은 전년 대비 112.4% 늘며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고, 일본도 84.8% 증가해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은 전체 방한객 수에서는 1위지만 연안지역 해양관광 소비에서는 6위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 해양관광 정책이 단순 입국자 수가 아니라 연안지역의 소비 기여도와 지출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연안지역별로는 기존 부산·제주 중심 구조에서 부산·인천 중심의 관문형 연안거점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5년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전북연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연안은 74.1% 증가해 전체 연안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부산연안도 51.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까지는 부산연안과 제주연안이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했으나, 2025년에는 인천연안이 3,258억 원으로 제주연안 3,072억 원을 상회하면서 부산·인천 중심의 대도시·관문형 연안거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해양관광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서 연안지역 내 체류와 소비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내수 보완이나 단순 방한객 유치에서 벗어나 연안지역에서의 체류·쇼핑·체험·미식 소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은 외국인 시장을 겨냥한 「K-Ocean Experience」를 핵심 정책사업으로 삼고, 한국 연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해양레저와 섬 관광, 어촌 체험, 해양치유, 수산 미식, 항만·크루즈 관광 등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해양관광을 단순 숙박·쇼핑 소비에서 체험형 고부가가치 소비로 끌어올리고, 부산·인천·제주 등 관문형 연안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수요를 넓혀가는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하면,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소비 규모와 결제 수준, 국가별 시장구조, 지역별 거점 구조, 계절별 분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나타난 해였다.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는 2년 만에 약 두 배로 성장하며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올랐다. 동시에 부산·인천 중심의 관문형 거점, 대만·일본 등 핵심 성장시장, 숙박·쇼핑에 치우친 소비구조, 비성수기 수요의 확대 가능성이 함께 확인되었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시장 설정, 관문형 연안거점 육성, 체험형 상품 개발, 외국인 친화적 예약·결제·이동·안내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분석 개요

■ 나이스지니데이터(주)가 제공한 외국인 대상 상권매출 및 소비행태 분석 실시

- 기간 및 대상

- 기간: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36개월)
- 대상: 2025년 기준 해양·연안지역의 행정동 492개

* 2023년-2024년까지의 데이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기존 동향분석(2025.9)자료 활용

- 방법 및 활용데이터

- 분석방법: 나이스지니데이터(주)가 제공한 외국인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492개 행정동 내 해양관광 관련 업종 전체 사업자의 매출을 집계·분석함
- 해양관광 관련 업종 범위: 해양관광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함. 단, 분석대상 지역에서 업종별 표본 점포 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표 1〉 지역 해양관광 영향효과 분석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매·유통	음/식료품소매, 의복/의류, 패션잡화, 스포츠/레저용품, 종합소매점 등
여가오락	취미/오락, 요가/마사지 등
음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수산물요리, 고기요리, 커피/음료, 주점 등
숙박	일반호텔, 기타숙박, 리조트, 모텔/여관, 펜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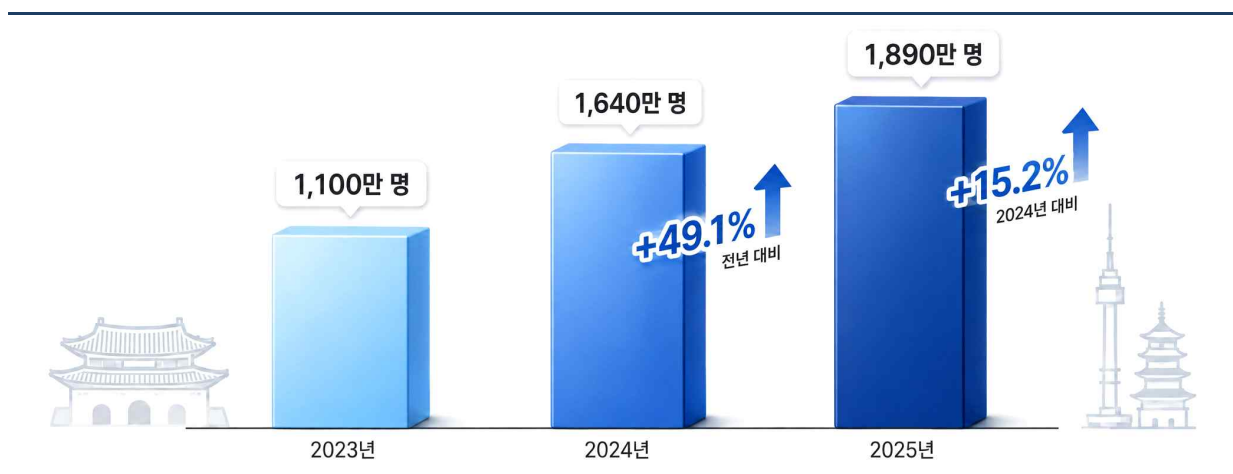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소비규모 분석

■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1,890만 명 기록, 수도권·핵심국 집중 속 해양 유입경로 잠재력 확인¹⁾

- 2025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은 1,89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정부는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함
- 이는 외국인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양관광 소비시장에서도 외국인 관광수요의 회복 및 확산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방한 외래관광객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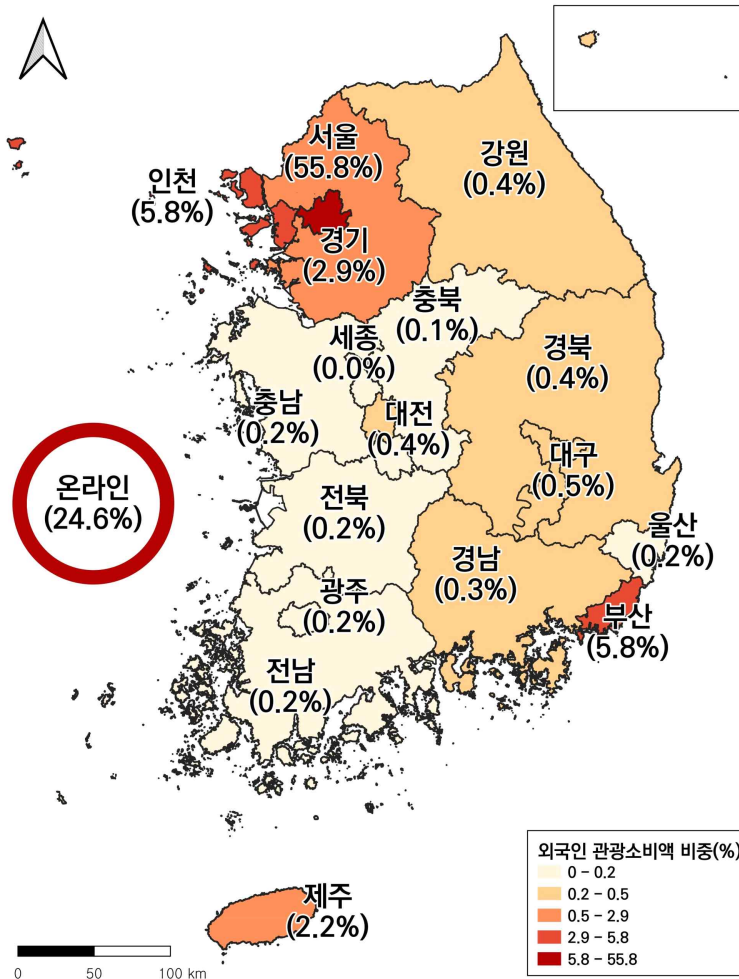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추정한 전체 외국인 관광소비액은 약 17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나타남²⁾
- 지역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5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온라인 소비 24.6%, 인천광역시 5.8%, 부산광역시 5.8%, 경기도 2.9% 순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외국인 관광소비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보임³⁾

1) 해당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관련 국가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해양관광 시장 소비 데이터와 조사체계 및 산출방식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정량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외국인 관광시장 전반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해양관광 소비 변화와 비교·해석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함

2)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내 국가별 방한현황(빅데이터),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NatFocTourAna.do#> (검색일: 2026. 5. 15.)

3) 별도 추정된 온라인 소비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기 어려운 비대면·플랫폼 기반 소비로 볼 수 있어, 지역별 소비 집중도를 해석할 때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202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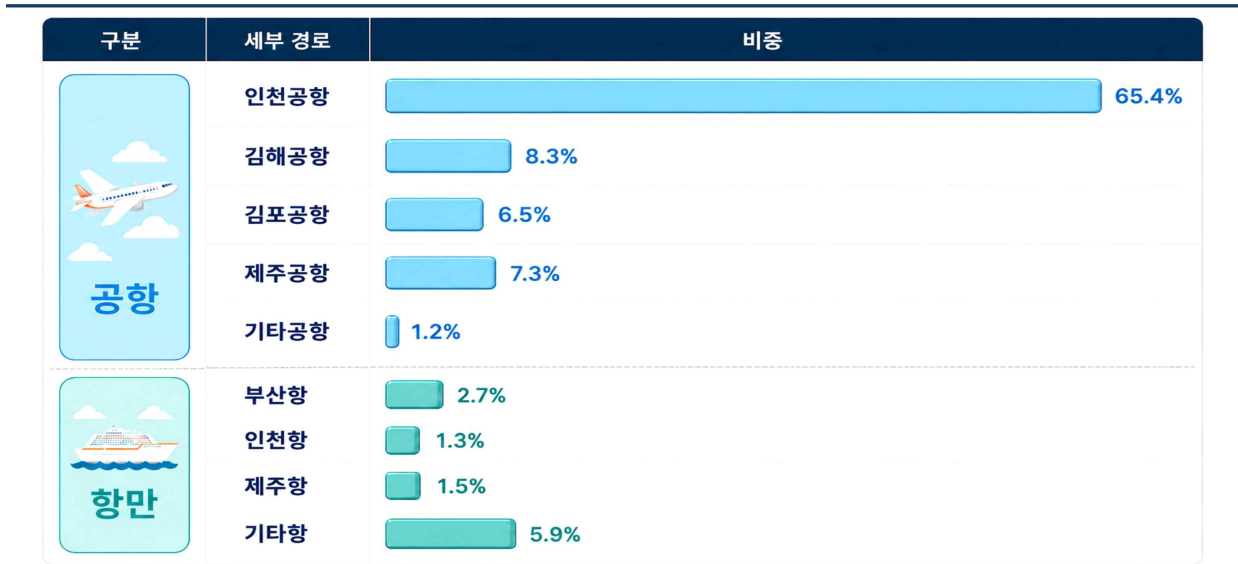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 경로는 공항 입국이 88.6%, 항만 입국이 11.4%로 나타나, 방한 외래관광객 유입 구조가 항공 교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인천공항이 6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김해공항(8.3%), 제주공항(7.3%), 김포공항 (6.5%) 등 지방 및 보조 관문공항을 통한 입국도 일정 비중을 형성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수요의 지역 분산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⁴⁾
- 한편, 항만 입국은 기타항(5.9%), 부산항(2.7%), 제주항(1.5%), 인천항(1.3%) 순으로 나타나 공항 대비 비중은 작지만, 크루즈·국제여객선·연안관광 등 해양관광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유입경로로서 정책적 의미가 있음

4) 한국관광데이터랩 내 방한 외래관광객(관광통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EntcnyFrgrnCust2Form.do> (검색일: 2026.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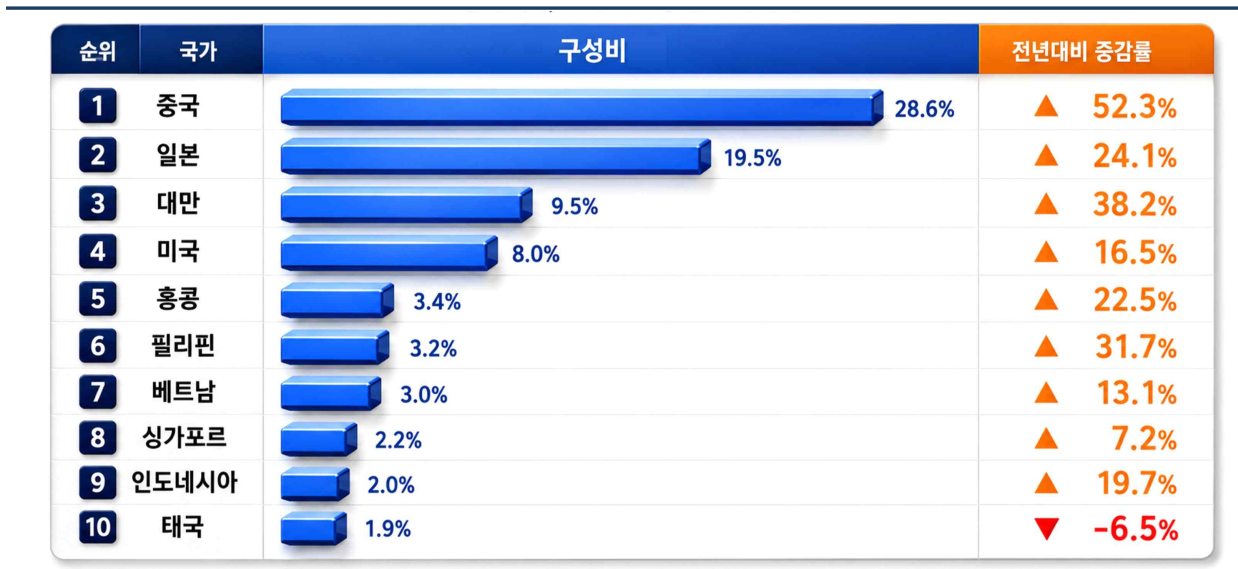
〈그림 3〉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경로별 비중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외국인 관광시장의 국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국이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일본 19.5%, 대만 9.5%, 미국 8.0% 순으로 나타남. 상위 4개국인 중국·일본·대만·미국의 합산 구성비는 65.6%로,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가 일부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중국은 비중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52.3% 증가하며, 외국인 관광시장의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분석됨

〈그림 4〉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개국 구성비 및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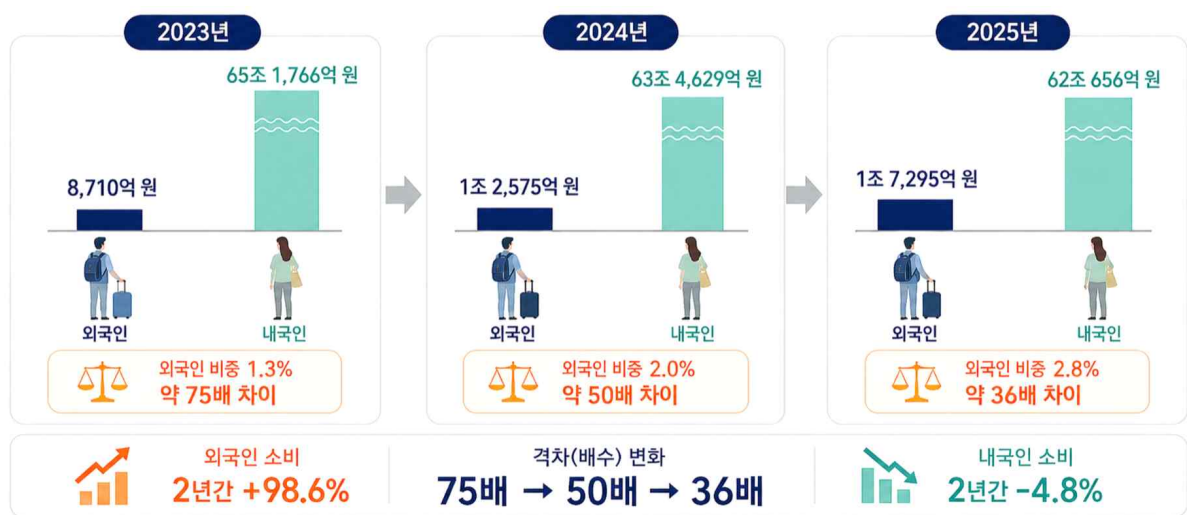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연안지역 소비 빠르게 성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내국인과의 격차 빠르게 축소

- 2025년 외국인의 연안지역 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감. 전체 소비액은 1조 7,295억 원으로 전년(1조 2,575억 원) 대비 37.5% 증가하였고, 이 중 해양관광 관련 업종 소비는 1조 4,493억 원으로 전년(1조 258억 원) 대비 41.3% 늘어 전체 소비보다 빠르게 확대됨. 같은 기간 내국인 소비는 전체 -2.2%, 해양관광 -3.9%로 2년 연속 감소해 뚜렷한 대비를 보임
- 다만 절대 규모에서는 여전히 내국인 시장이 압도적임. 2025년 내국인의 연안지역 전체 소비액은 62조 655억 원으로, 외국인 소비액(1조 7,295억 원)의 약 36배에 달함
- 양 시장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내국인 소비시장 대비 외국인 소비시장의 상대적 규모는 2023년 약 1.3%에서 2024년 약 2.0%, 2025년 약 2.8%로 매년 확대되었으며, 증가 폭도 전년 대비 0.6%p에서 0.8%p로 커짐. 이를 양 시장의 규모 차이로 환산하면 내국인 소비시장은 외국인 소비시장의 약 75배에서 50배, 36배 수준으로 낮아짐. 이는 외국인 소비가 2023년 8,710억 원에서 2025년 1조 7,295억 원으로 2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소비는 4.8% 감소한 결과로 전체 연안지역 소비시장에서 외국인 소비시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5〉 외국인과 내국인의 연안지역 소비 규모 비교(2023년~2025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1조 4,493억 원, 2년 만에 두 배로 성장

- 외국인의 해양관광 관련 업종 소비 규모는 2023년 7,207억 원에서 2024년 1조 258억 원, 2025년 1조 4,493억 원으로 매년 40%대의 높은 증가세(+42.3%→+41.3%)를 이어가며, 2년 만에 101.1%(약 2배) 성장하는 등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외국인 연안지역 전체 소비에서 해양관광 관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2.8%, 2024년 81.6%, 2025년 83.8%로 매년 80%를 상회하며 2025년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외국인의 연안지역 소비가 대부분 해양관광 관련 업종에서 발생하는 관광 집중형 구조임을 의미하며, 같은 기간 해양관광 소비 증가율(+101.1%)이 연안지역 전체 소비 증가율(+98.6%)을 웃돌아 외국인 연안 소비의 확대를 해양관광 업종이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는 연속 40%대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커졌고, 연안지역 소비 내 비중도 확대되는 등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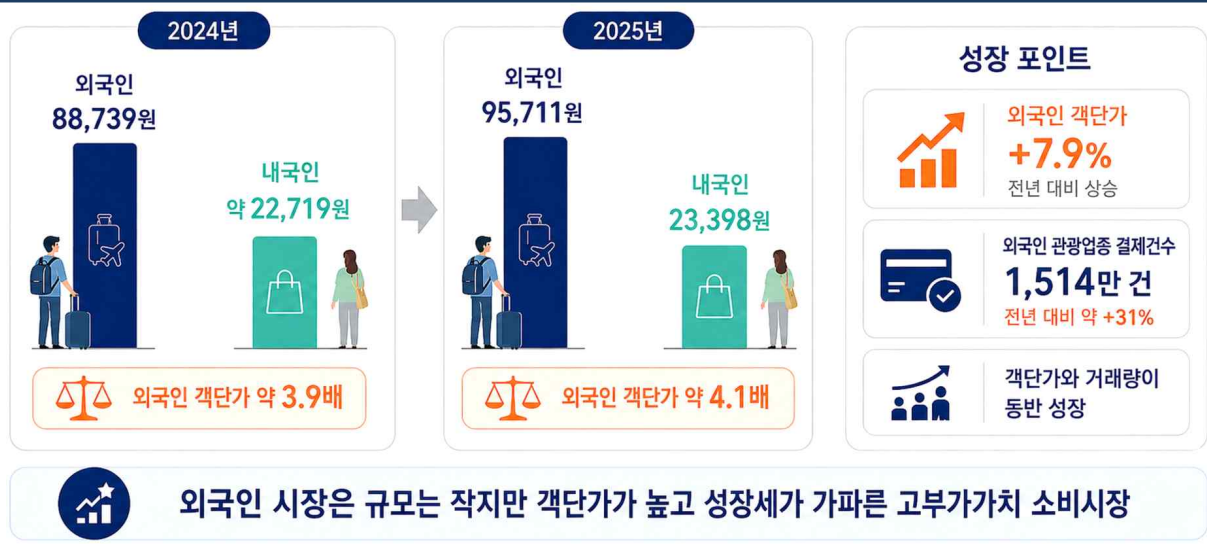
〈그림 6〉 2023년~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규모 변화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95,711원으로 전년(88,739원) 대비 7.9% 증가함. 이는 내국인 관광객(23,398원)의 약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외국인 소비가 건당 단가 높은 고부가 구조임을 보여줌. 결제 건수 역시 1,5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 늘어, 단가와 이용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됨
- 이는 외국인 관광시장이 절대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결제 1건당 지출 수준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시장임을 시사함

〈그림 7〉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의 1회 평균 결제금액 비교(2024년~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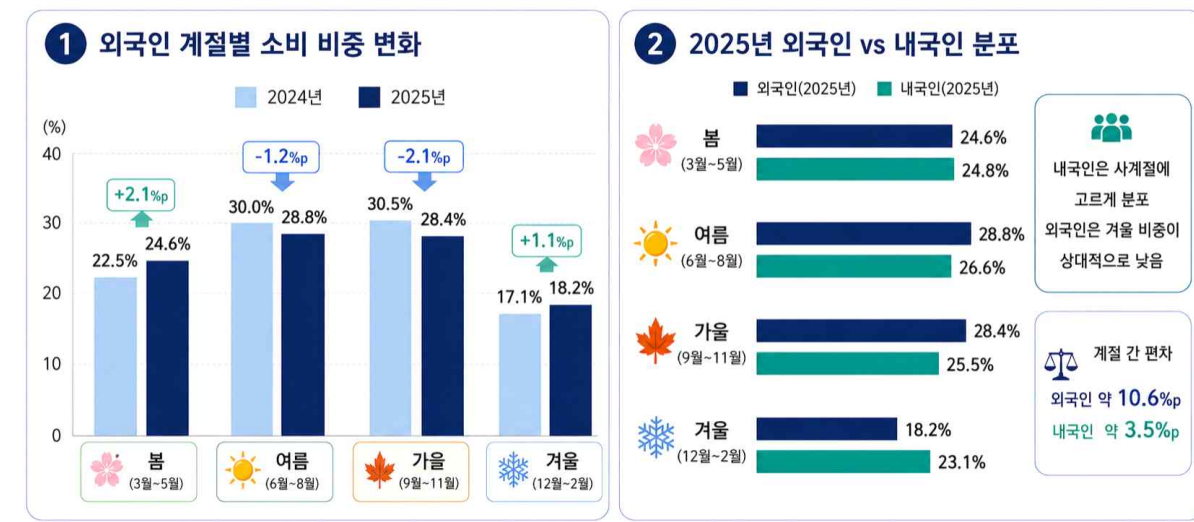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여름·가을 집중 지속 속 봄·겨울 빠른 성장으로 계절 편중 완화

- 외국인과 내국인의 계절별 해양관광 소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봄(24.8%)·여름(26.6%)·가을(25.5%)·겨울(23.1%)로 계절 간 편차가 3.5%p 내외에 그쳐 사계절에 매우 고르게 분포함. 외국인 역시 봄(24.6%)·여름(28.8%)·가을(28.4%)은 24~29%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겨울(18.2%)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계절 간 편차가 10.6%p로 내국인보다 크게 형성됨
-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성수기 집중도는 다소 완화됨. 2024년에는 가을(30.5%)이 여름(30.0%)보다 높았으나 2025년에는 여름(28.8%)이 가을(28.4%)을 근소하게 앞서며 순위가 역전되었고, 두 성수기 비중은 모두 하락(가을 -2.1%p, 여름 -1.2%p)한 반면 봄(+2.1%p)과 겨울(+1.1%p)은 상승함. 특히 가장 낮았던 겨울철 비중이 2024년 17.1%에서 2025년 18.2%로 회복되며 계절 간 격차가 줄어들음
- 절대 소비액은 모든 계절에서 증가하였으나, 성장 속도는 비수기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남. 2024년 대비 2025년 소비 증가율은 봄(+54.4%)과 겨울(+50.5%)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을(+31.6%)이 가장 낮았음. 이는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가 여름·가을 성수기를 넘어 봄·겨울로 점차 확산되는 초기 신호로 해석됨

〈그림 8〉 외국인·내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계절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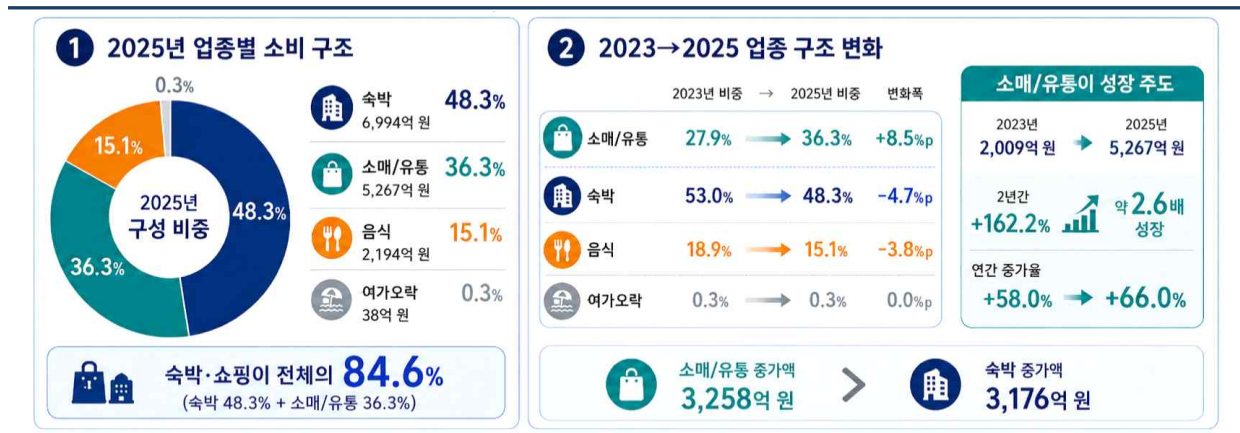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업종별 소비, 숙박 비중 축소, 쇼핑(소매/유통) 비중 확대로 업종 구조 변화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를 업종별로 보면 숙박(48.3%)과 소매/유통(36.3%)이 전체의 84.6%를 차지하며, 음식(15.1%)과 여가오락(0.3%)이 그 뒤를 이음.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숙박과 쇼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보여줌
- 업종 중에서는 소매/유통(쇼핑) 소비가 성장을 주도함. 소매/유통은 2023년 2,009억 원에서 2025년 5,267억 원으로 2년 만에 162.2%(약 2.6배) 증가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연간 증가율도 +58.0%에서 +66.0%로 가속됨. 비중 역시 27.9%에서 36.3%로 8.5%p 상승하였으며, 2년간 절대 증가액(3,258억 원)도 숙박(3,176억 원)을 웃돌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함
- 반면 숙박은 6,994억 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48.3%)을 차지하나 증가율(+83.2%)이 시장 전체 평균(+101.1%)을 밑돌면서 비중이 53.0%에서 48.3%로 4.7%p 하락하였고, 음식업종도 가장 더디게 성장하며 비중이 18.9%에서 15.1%로 3.8%p 낮아짐.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숙박 중심' 구조에서 '숙박과 쇼핑이 병행되는' 구조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
- 한편 여가오락 소비는 2025년 38억 원(0.3%)에 그쳐 절대 규모와 비중 모두 미미한 수준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에서 체험·레저형 소비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해양레저·체험형 콘텐츠가 확충될 경우 성장 여력이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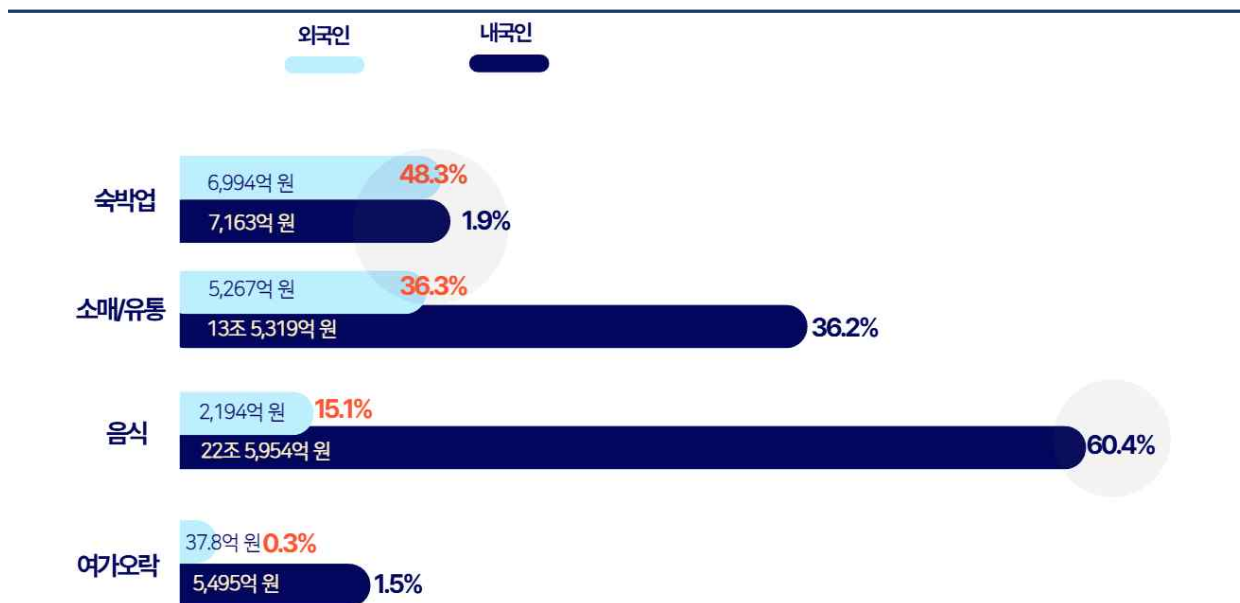
〈그림 9〉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업종 구조 변화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외국인과 내국인의 해양관광 소비를 업종별로 비교하면 소비 성격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 2025년 기준 내국인은 음식(22조 5,954억 원, 61%)과 소매/유통(13조 5,319억 원, 36.5%)이 전체의 97.5%를 차지하는 반면, 외국인은 숙박(6,994억 원, 48.3%)과 소매/유통(5,267억 원, 36.3%)이 84.6%를 차지함
- 소매/유통 비중은 양측이 36%대로 유사하나, 숙박 비중은 외국인(48.3%)이 내국인(1.9%)을 크게 웃돌고 음식 비중은 내국인(61%)이 외국인(15.1%)을 크게 웃돌아, 외국인은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소비, 내국인은 식음료 중심의 당일·생활밀착형 소비라는 대조적 구조를 보임

〈그림 10〉 2025년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의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교



주: %: 전체 매출액 중 해당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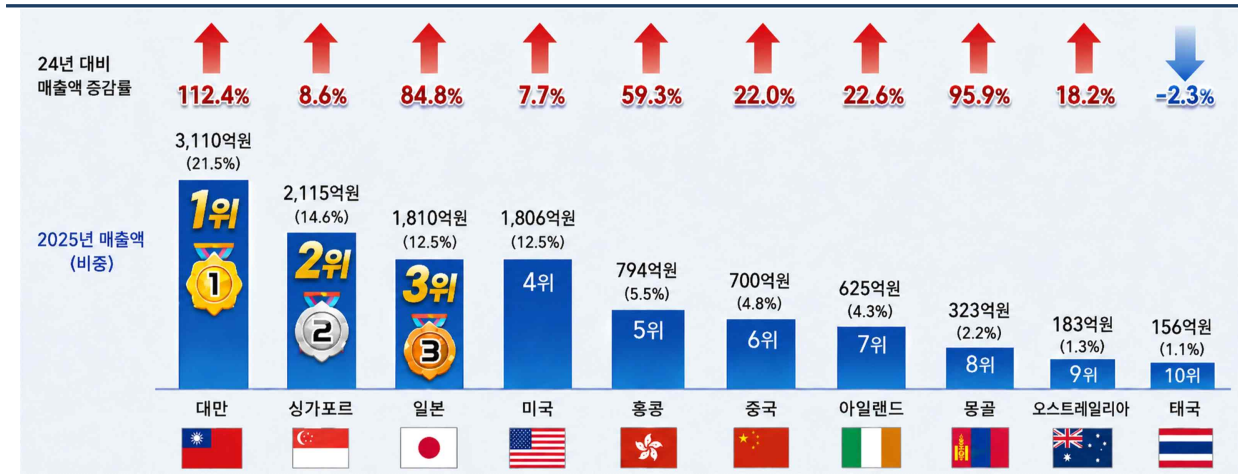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외국인 국적별 해양관광 소비는 대만 1위, 일본 3위로 급상승하며 국가별 소비 순위가 크게 재편

- 2025년 외국인의 해양관광 소비 상위 10개국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이 전체 소비에서 21.5%로 가장 크고, 이어 싱가포르(14.6%), 일본(12.5%), 미국(12.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대만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2.4% 증가하며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를 제치고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일본도 84.8% 증가하며 4위에서 3위로 상승해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주요 성장국으로 부상함
- 반면 싱가포르는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2위로 하락했고, 미국 역시 전년 대비 매출액이 7.7% 증가했으나,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 따라 지난해 2위에서 올해 4위로 하락함
- 국가별 방한 현황과 비교하면,⁵⁾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임에도 연안지역 관광소비는 6위에 그친 반면, 대만(방한현황 3위, 연안관광소비 1위)과 싱가포르(방한현황 8위, 연안관광소비 2위)는 방한 규모는 작지만 연안지역에서의 관광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오히려 큼
-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이들의 해양관광 소비액 합계는 9,009억 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액의 62.2%를 차지함. 이는 외국인의 연안지역 관광소비가 여전히 아시아권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 등 중국어권 국가·지역이 전체의 46.4%를 차지함
- 상위 10개국 중 대부분 국가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대만(112.4%), 몽골(95.9%), 일본(84.8%), 홍콩(59.3%)의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태국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3% 감소하여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함

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통계(검색일: 2026. 5. 27.)

〈그림 11〉 2025년 외국인의 연안지역 관광소비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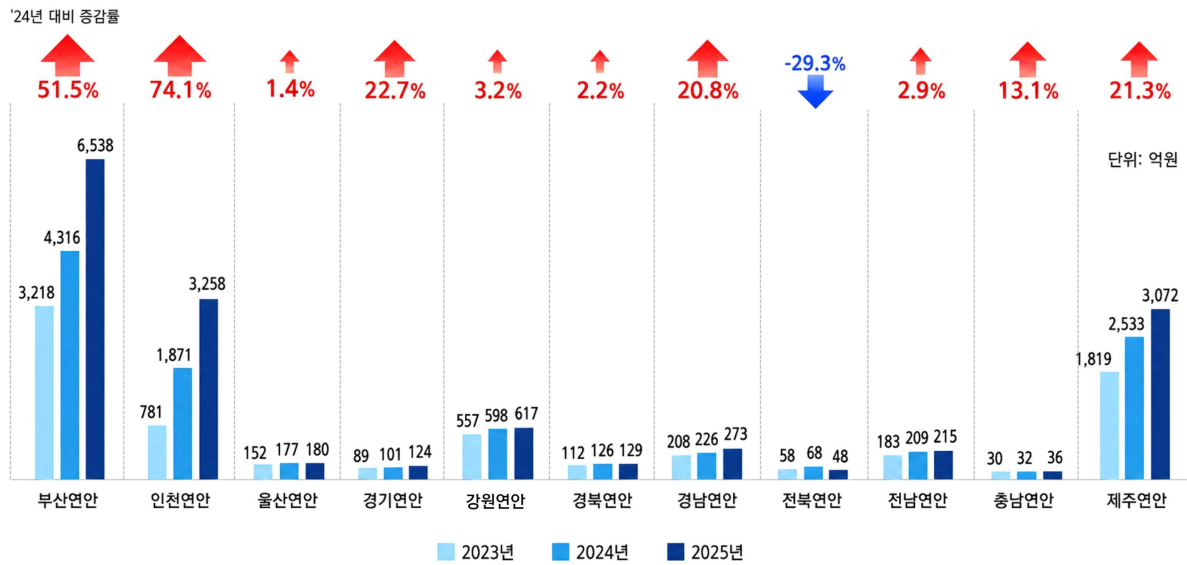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연안지역별로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을 보면 인천연안의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부산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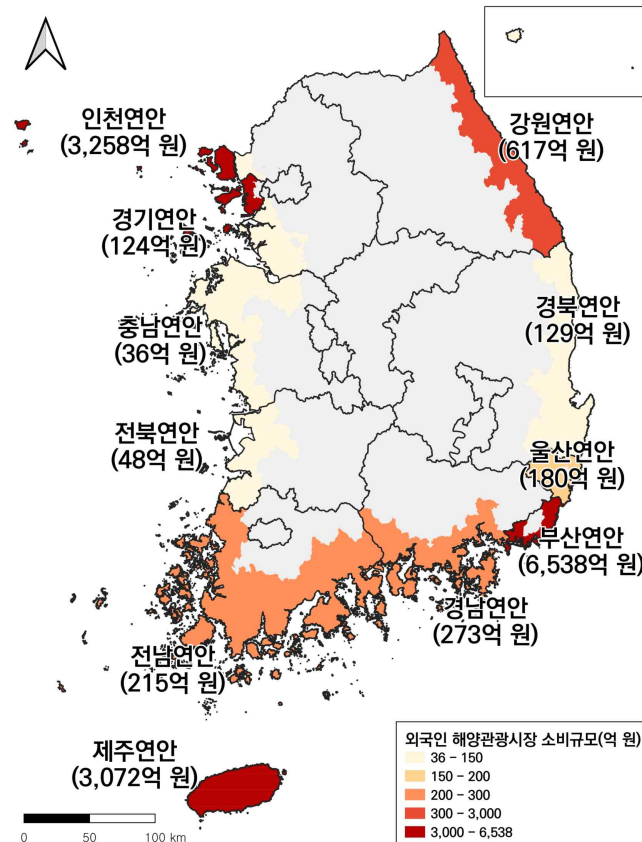
- 2025년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전북연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인천연안(+74.1%)은 전체 연안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부산연안(+51.5%)도 큰 폭으로 성장함
- 2024년까지는 부산연안과 제주연안이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했으나, 2025년에는 인천연안이 3,258억 원으로 제주연안 3,072억 원을 상회하면서 역전됨
- 2025년 부산연안과 인천연안은 전체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67.6%를 차지하며,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가 부산과 인천이라는 대도시·관문형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됨
- 제주연안도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3,072억 원 규모를 기록했으나, 인천연안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2024년에는 부산·제주 중심 구조에서 2025년에는 부산·인천 중심 구조로 시장 내 주요 거점이 재편됨
- 반면 전북연안은 전년 대비 29.3% 감소하여 전체 연안지역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가 모든 연안지역으로 균등하게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12〉 2025년 연안지역 X 연도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규모 변화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3〉 2025년 연안지역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규모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트렌드 분석

■ 인천·강원연안에서는 숙박 집중, 부산·경북연안에서는 소매·유통 중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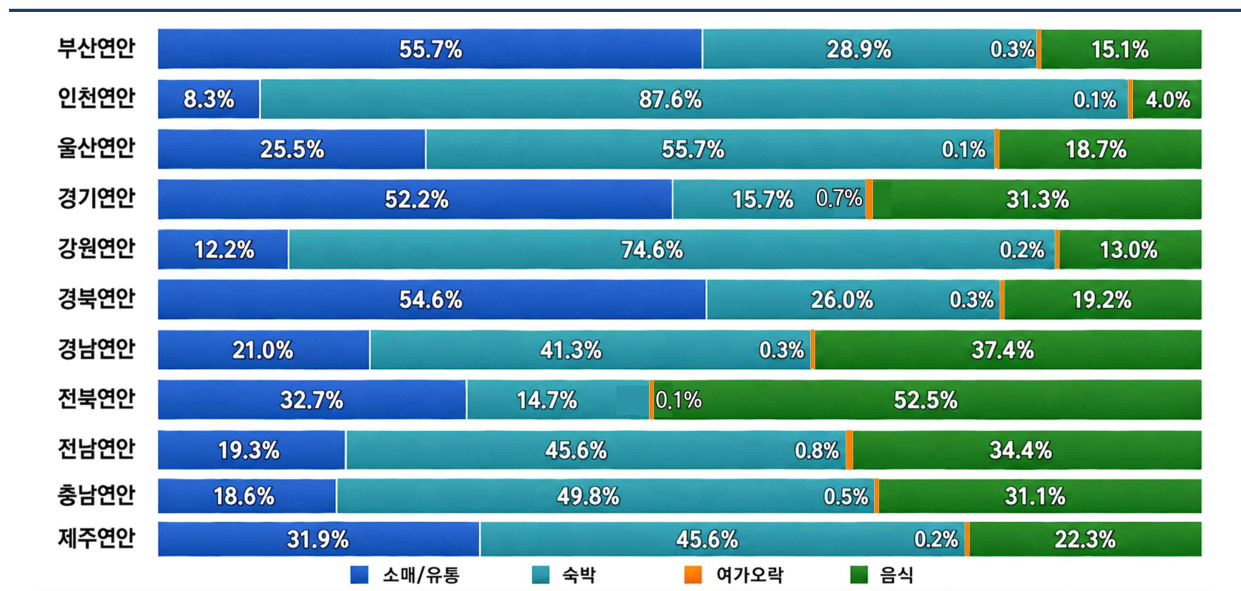
- 2025년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업종별 구조를 살펴보면, 인천연안(87.6%)과 강원연안(74.6%)은 숙박업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체류와 숙박 중심의 소비 구조를 보임. 특히 인천연안은 숙박 비중이 2024년 83.1%에서 2025년 87.6%로 더욱 확대됨
- 반면 부산연안은 소매·유통 비중이 2024년 45.3%에서 2025년 55.7%로 10.4%p 상승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같은 기간 숙박 비중은 38.1%에서 28.9%로 낮아져, 외국인 소비의 중심이 숙박에서 쇼핑과 유통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소매·유통업종은 부산연안(55.7%), 경북연안(54.6%), 경기연안(52.2%)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특히 경북연안과 경기연안은 2024년에도 각각 54.7%, 50.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소매·유통 중심의 소비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음식업종에서는 전북연안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2024년 39.8%에서 12.7%p 증가한 수준으로, 전북연안에서 음식 중심의 외국인 소비 특성이 한층 뚜렷함
- 여가오락 업종은 전 지역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임. 2025년 기준 전남연안(0.8%), 경기연안(0.7%), 충남연안(0.5%)을 제외하면 대부분 0.3% 이하에 머물러,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여전히 숙박, 소매·유통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요 연안 내부에서도 관광거점의 기능에 따라 외국인 소비구조가 뚜렷하게 분화

- 부산연안은 해운대구가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의 56.7%를 차지하는 중심지로 나타났으나, 동구와 중구, 기장군 등 주요 관광·상업거점에서도 일정 규모의 소비가 발생
- 해운대구에서는 숙박과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소비가 형성되는 반면, 동구와 중구, 기장군 등에서는 소매·유통 비중이 높아 교통거점과 원도심 상권, 대형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단기·목적형 소비 특성이 나타남
- 인천연안은 중구와 연수구가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의 98.4%를 차지하여 부산연안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보임
- 특히 중구는 숙박업종 비중이 96.8%에 달해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체류 수요가 집중되며, 연수구에서도 국제업무와 관광 기능에 연계된 숙박 중심 소비가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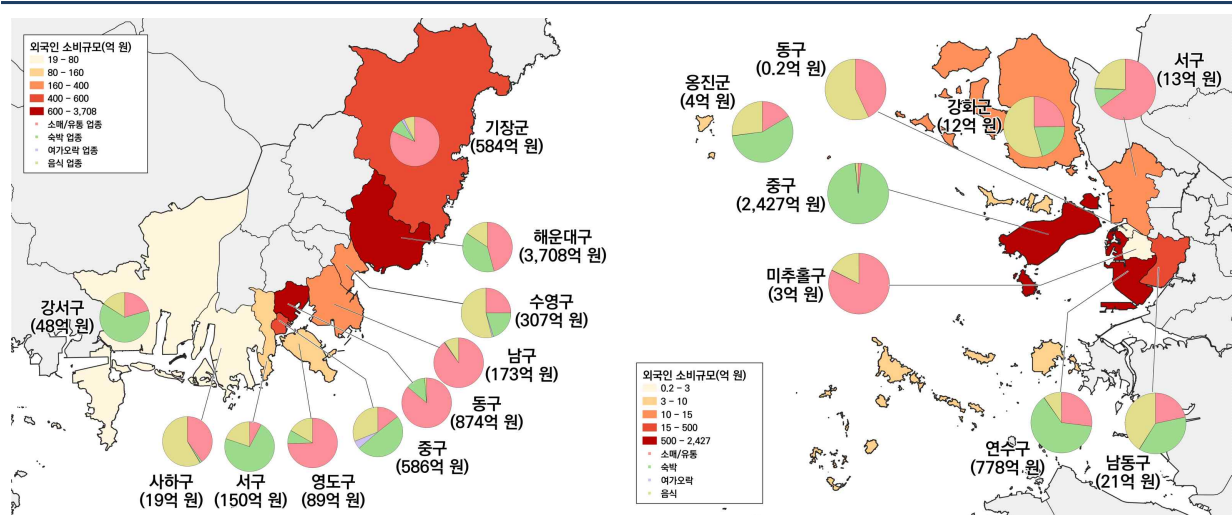
- 제주연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의 소비 기능이 상이하게 나타남. 제주시는 소매·유통과 음식 소비를 중심으로 쇼핑 및 상업거점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서귀포시는 숙박업종 비중이 69.3%로 높아 관광자원과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거점의 특성이 두드러짐
- 부산연안은 체류거점과 상업거점이 함께 형성된 다거점형 구조, 인천연안은 공항과 국제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숙박 집중형 구조, 제주연안은 제주시의 상업 기능과 서귀포시의 체류 기능이 구분되는 지역 간 기능분화형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4〉 2025년 연안지역 X 업종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소비트렌드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5〉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업종별 분포(좌: 부산연안, 우: 인천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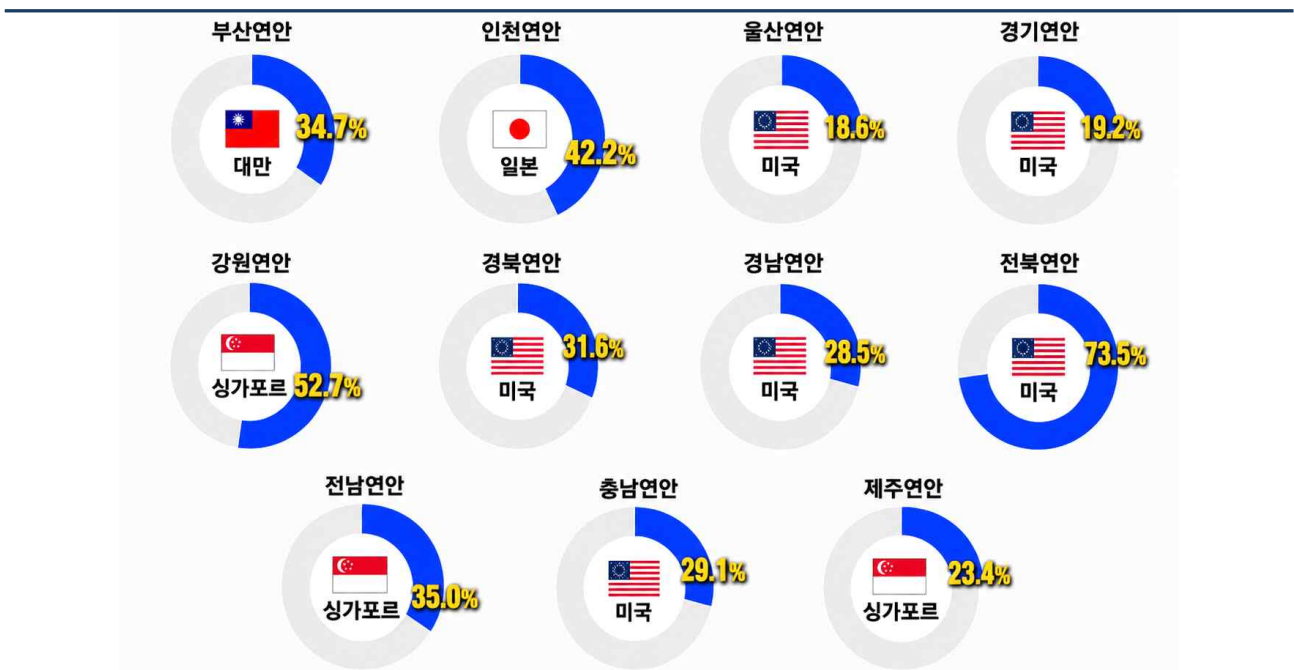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연안지역별 1위 소비 국가는 미국·싱가포르가 다수를 차지하나, 부산은 대만, 인천은 일본 중심의 소비 구조가 뚜렷

- 2025년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비중 1위 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핵심 소비층을 이루었고, 부산연안과 인천연안에서는 각각 대만과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미국은 11개 연안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소비 비중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지역에서 1위 소비 국가로 확인됨. 특히 전북연안은 미국 관광객의 소비 비중이 73.5%로 압도적으로 높아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큰 소비 구조를 보였으며, 경북·경남·충남연안에서도 미국이 3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싱가포르는 강원연안에서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남연안(35.0%)과 제주연안(23.4%)에서도 소비 비중 1위를 기록해 높은 소비 영향력을 보임
-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체 연안지역 관광소비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 대만이 3위, 일본이 4위였으나, 2025년에는 대만이 1위, 일본이 3위로 올라섬. 이러한 변화는 부산·인천의 1위 소비국 구성에서도 지역적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부산연안은 대만 관광객이 34.7%로 1위, 인천연안은 일본 관광객이 42.2%로 1위를 기록하면서, 각각 대만과 일본이 전체 연안지역의 주요 소비국으로 상승한 흐름과 연결됨

〈그림 16〉 2025년 연안지역 x 국적별 소비 비중 1위 국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의 성장 단계 진입에 대응한 정책 전환 필요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는 1조 4,493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두 배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연안지역 소비 중 해양관광 관련 업종 비중도 83.8%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 연안 소비의 핵심이 해양관광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외국인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95,711원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약 4.1배 수준이며, 결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여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고부가가치 성장시장으로 평가됨
- 반면 전체 소비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내국인 소비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을 단순히 내수시장의 보완시장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연안지역 관광소비의 성장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국인 해양관광을 별도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수요 분석, 목표시장 설정, 지역별 거점 육성, 상품화, 홍보·마케팅, 성과관리까지 연계되는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Ocean Experience」를 통한 외국인 해양관광 대표 브랜드 구축 필요

-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대상 해양관광 상품은 지역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인지될 수 있는 대표 브랜드와 통합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외국인 시장을 겨냥한 「K-Ocean Experience」를 핵심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연안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국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음
- 「K-Ocean Experience」는 단순 해변 방문이나 숙박 중심 상품을 넘어, 해양레저, 섬 관광, 어촌 체험, 해양치유, 해양문화, 수산 미식, 항만·크루즈 관광 등을 결합한 외국인 특화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소비에서 여가오락 업종 비중이 0.3%에 그치고 있어, 현재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숙박·쇼핑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안지역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자출할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형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부산·인천 중심의 관문형 연안거점 육성을 통한 외국인 해양관광 확산 필요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은 전북연안을 제외한 모든 연안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연안이 74.1%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부산연안도 51.5%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짐
- 2024년까지는 부산·제주 중심의 시장 구조가 뚜렷했으나, 2025년에는 인천연안 소비규모가 3,258억 원으로 제주연안 3,072억 원을 상회하면서,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의 주요 거점이 부산·인천 중심의 관문형 연안지역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부산연안과 인천연안은 전체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가 공항·항만·도시관광·상업기능이 결합된 대도시 연안거점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 해양관광 정책은 모든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등 지원 방식보다, 부산·인천 등 성장성이 확인된 관문형 연안거점을 우선 육성하고 이를 주변 연안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국가별 소비 특성 변화에 대응한 목표시장 재설정 필요

- 2025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에서는 대만이 소비 비중 21.5%로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이 3위로 상승하는 등 국가별 소비 순위가 크게 재편됨. 특히 대만은 전년 대비 112.4%, 일본은 84.8% 증가하여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를 견인한 핵심 성장시장으로 부상함
- 이는 방한객 수 중심의 시장 판단만으로는 연안지역 해양관광 소비의 실질적 기여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중국은 방한객 수 기준 1위임에도 연안지역 관광소비에서는 6위에 그친 반면, 대만과 싱가포르의 방한 규모 대비 연안지역 소비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 해양관광 정책은 단순 입국자 수 중심의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연안지역 소비 기여도, 결제 1건당 지출 수준, 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타깃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 특히 중국어권 국가·지역의 소비 비중이 전체의 46.4%를 차지하는 만큼, 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 등을 대상으로 다국어 정보 제공과 예약·결제 편의를 확대하고, 미식·쇼핑·체험을 연계한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일본 시장은 인천연안에서 1위 소비국으로 나타나는 등 특정 관문지역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므로, 단기 체류와 재방문 수요를 고려한 근거리 해양관광 상품의 전략적 개발이 중요함

■ 외국인 해양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2025년 분석 결과는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국가별·업종별·계절별로 소비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해양관광 정책은 일률적 홍보나 단발성 상품 개발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시장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특히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는 부산·인천·제주 등 일부 거점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대만·싱가포르·일본·미국 등 핵심 소비국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따라서 지역별 핵심 대상 국가, 주요 소비업종, 체류거점, 소비 취약업종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체계가 요구됨
- 올해 말에 발표될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외국인 해양관광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하고, 카드매출, 이동통신, 입국통계, 외국인 해양관광 실태조사, 플랫폼 예약자료 등을 연계하여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예정임